

# 중소기업 대통령



김승호의  
시선

‘중통령’이라고 불리며 중소기업중앙회를 16년째 이끌고 있는 김기문 회장이 내년 2월 임기까지 소임을 다한 뒤 떠나겠다고 최근 입장을 피력했다.

박수철 때 떠나기로 한 김 회장의 결정에 출입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박수를 드린다. 중소기업계의 어른, 원로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는 판단에 마음을 담아 응원을 보낸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란다.

김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은 중동 전쟁 등 여러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다. 그래서도 중소기업 대표 단체이자 만능적인 중기중앙회를 이끄는 수장의 위치는 엄중한 자리임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해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중소기업계에 김 회장이 5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넘고 연임을 막는 족쇄가 풀릴 경우 김 회장이 주변으로부터 등 떠밀려 나오는 그림이 그렇다.

실제 일부 인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같은 날 중기중앙회 노조는 “즉속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대 여론전을 폈다. 중기중앙회 주변 인사들도 “연임 제한 폐지”와 “너무한다”는 쪽으로 갈랐다.

국회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섰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이를 놓고 벌인 의원들간 설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폐해 방지’를 이유로 과거 도입했던 연임 제한 규정을 바꾸는 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김 회장의 용퇴 결정으로 중소기업계와 정치권내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김 회장은 회장 임기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는 중앙회장 임기와 별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2회까지만 가능’한 현행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전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중기중앙회 안팎의 분위기로라면 내년 2월 말 예정한 제28대 회장 선거는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중기중앙회는 경선을 했던 과거 제25·26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다.

벌써부터 회장 투표권을 가진 이사장과 연합회장들의 색깔이 갈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차기 회장 선거에서 이들 중 어떤 표를 가져가는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도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연간 17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받고 있다. 모두 국민 혈세다. 조직은 법정단체이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다. 그만큼 공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회장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차기 중소기업 대통령은 저성장 고착화와 ‘9980’ 숫자로 대변되는 중소기업 중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은 물론이고 포용력과 높은 도덕성을 겸비한 탈권위적인 인물을 기대한다. /bada@metroseoul.co.kr

# 디지털금융과 소비자 불신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디지털금융은 어느 때보다 활성화됐다. 개인 간 현금 거래는 모바일 환경이 주가 됐고, 명절 용돈도 간편 결제 앱의 송금 기능을 활용한다. 지난해 민생지원금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 지급됐으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상품권을 디지털 상품권으로만 유통하고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때면 상담원이 실물 카드가 필요한 지 되물어온다.

디지털금융은 활성화됐지만 사용자의 신뢰는 두텁지 않다. 아날로그 금융에서 디지털금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고가 수시로 발생해서다. 바로 지난 달에는 모 가상자산 거래소

가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십 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오지급했고, 이번 달에는 모 간편송금 앱 내에서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잘못 적용돼 환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의 불신은 금융기관의 평판 저하로 이어진다. 지난 24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모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치한 수천만원이 동의 없이 이체됐다는 허위 제보가 확산됐다. 해당 은행은 해당 제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명시하고 대응에 나섰다. 해당 내용은 하루 만에 200만 명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예금을 해지한 ‘인증’도 다수 올라왔다. 게시물은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 허위 게시글이었지만, 해당 내용에 동조한 누리꾼들은 해당 은행의 계열사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를 이유로 불신을 퍼뜨렸다.

‘아날로그금융’에서 ‘디지털금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금융기관에는 예측 가능하며, 예방 가능한 금융사고를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디지털금융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내부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직원이 맡았던 업무가 AI에게 넘어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이미 단순 입·출금이나 상담 업무에 AI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대출심사나 이상거래 감지 등 금융사고에 취약한 부분에도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금융사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 드는 비용은 신뢰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비싸다. 새로운 ‘과도기’를 지나는 지금이야말로, 금융기관들이 신뢰를 지키는데 힘써야 할 때다. /asj1231@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7일 (음 2월 9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끝이 없고 감이 다소 분명치 못합니다. 60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72년생 동료들에게 더욱 인정을 받습니다. 84년생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49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6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세요. 73년생 동북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85년생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50년생 사방이 다 갈탄 방면입니다. 62년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귀하의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74년생 소유한 것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86년생 능력 이상의 일에는 참견하지 마세요.



51년생 불행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63년생 자신감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75년생 이웃과 더욱 잘 지내도록 하세요. 87년생 미래가 아주 밝고 희망이 더욱 넘칩니다.



52년생 처음은 좋으나 끝이 다소 불안한 하루입니다. 64년생 소원은 무난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76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88년생 술자리는 특히 조심하세요.



53년생 생활을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사세요. 65년생 차분한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77년생 힘 자랑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89년생 집 안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54년생 감기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66년생 주변을 항상 주의하도록 하세요. 78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세요. 90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55년생 이성과 다툼의 조짐이 다소 있습니다. 67년생 큰 길운이 따르는 편입니다. 79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과 만나게 됩니다. 91년생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욱 더해집니다.



56년생 사고판단을 더욱 정확하게 하도록 하세요. 68년생 그동안 노력의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80년생 칭찬 혹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7년생 때가 좋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69년생 주변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81년생 아랫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93년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너무 들뜨지 마세요.



58년생 지금은 뾰족한 수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70년생 욕심이 앞서면 결국 그에게 맞는 실패를 하기 쉽습니다. 82년생 저녁 약속은 가급적 피하세요. 94년생 건강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59년생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71년생 마음의 걱정을 주변의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83년생 조상을 잘 모셔안나 나쁜 일을 면합니다. 95년생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김상회의四季 양투아네트와 가짜뉴스

프랑스 혁명의 불길 속에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 마리 앙투아네트일 것이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공주로 태어난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시집와서 루이 16세의 왕비가 되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유였다. 앙투아네트가 왕비가 되었을 무렵 프랑스는 이미 재정이 흔들리고 있었다. 전쟁 비용과 궁정의 지출에 그동안 쌓인 부채가 나라를 짓눌렀다. 시민들은 세금 부담에 시달렸고 빵값은 계속 올랐다. 시민들의 분노가 가득 찬 상황에서 앙투아네트는 화려한 생활을 즐겼다. 굶주린 시민들은 왕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앙투아네트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말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일 것이다. 이 말은 화려하게 살던 그녀의 무지와 오만함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녀의 말이 아닌 이른바 가짜뉴스였다. 이 문장은 철학자 루소의 저서인 ‘고백록’에 처음 등장하는데, 루소는 어느 고귀한 공주가 이 말을 했다고 기록했을 뿐이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기 전부터 이 말은 왕실과 왕비를 비난하기 위한 가짜뉴스로 퍼돌았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고 가짜뉴스는 미움의 대상이던 왕비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녀는 도덕적 타락의 상징처럼 다루어졌고 결국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했고 비난받아 마땅한 지배층이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만들어 낸 가장 유명한 희생자이기도 했다. 오늘날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순식간에 퍼지고 누군가의 인생은 하나의 가짜뉴스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역사에 비춰볼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겨학원

#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렌즈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1	3	9	4			
	1		4	2				
		9			8	3		
			8				9	
	9			6				
5		6						
3	1			5				
		7	2		3			
	5	2	8	7				1

1	4	7			2		3	
				7	5	4		
5	2				3			4
		4	6		7	2		
6			5				8	1
		1	4	3				
3		2				6	7	9

활인도서

1	6	7	2	8	9	3	4	5
8	9	5	1	9	2	2	6	7
2	9	2	9	6	7	8	1	5
2	8	6	1	9	7	2	9	9
7	1	9	2	9	5	6	2	8
6	2	9	8	7	2	5	9	1
5	8	1	9	2	6	9	7	2
9	2	7	8	5	1	5	6	6
9	7	6	5	2	1	9	8	2

6	2	9	8	1	2	9	5	8	7
2	9	8	6	5	7	1	9	2	4
5	7	1	9	2	2	2	8	6	6
1	8	2	7	2	9	6	2	9	7
9	1	6	2	8	9	7	1	5	5
7	9	2	5	6	1	8	2	9	9
2	2	6	1	7	5	9	9	8	2
9	1	7	9	2	8	5	1	5	2
8	5	2	9	6	2	7	1	1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